

신선태을자금단(神仙太乙紫金丹)*

- 조선의 만병통치약 -

김 성 수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 머리말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조선시대에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던 신선태을자금단(神仙太乙紫金丹)이라는 약이다. 15세기 후반 이종준(李宗準)이 저술한 『신선태을자금단방』(神仙太乙紫金丹方)에 자세하게 소개된 이래, 『동의보감』(東醫寶鑑) 『산림경제』(山林經濟) 『납약증치방』(臘藥症治方) 및 『제중신편』(濟衆新編) 등에도 실려 있는 약이다. 태을자금단을 소개한 『신선태을자금단방』은 조선시대 내내 인기가 있었던 의서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판본들이 전해지고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교토대학부속 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16)

주제어: 이종준, 신선태을자금단, 만병통치약, 본초학

Lee Jong-jun, Sinseon-Taedul-Chakeumdan, panacea, herbal medicine

있으며, 태을자금단의 처방구성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기록한 여러 종류의 필사본도 존재하고 있다. 그만큼 태을자금단은 조선시대에 영향력이 높은 처방이었다.

이처럼 태을자금단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조선에 전해진 이후 일본에까지 알려져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영약(靈藥)이 되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인한 미키 사카에 문고에는 일본에서 필사한 『신선태을자금단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서문이나 발문이 없는 관계로 간행의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본에까지 전해져 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태을자금단이 조선은 물론 일본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신선태을자금단방』에 대한 연구로는 김두종과 미키 사카에(三木榮)가 소개한 이래, 김신근에 의한 해제와 안병희의 간단한 소개가 있으며, 최근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영인 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하기태 등에 의해 『신선태을자금단방』에 수록된 이종준의 의안(醫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¹⁾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종준에 대한 약력이나 신선태을자금단의 구성과 이종준이 남긴 의안에 대한 일부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종준이 이와 같은 의서를 편찬하게 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조선 시대 의료에서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다. 필자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매우 단순한 결론이기는 하지만 『신선태을자금단방』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회적, 의료적 배경은 민간의료의 부족에서 찾아진다.

그렇다고 15세기의 마지막 시기에 편찬된 이 의서가 오직 당시의 사회상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태을자금단은 이후로도 계

1) 三木榮(1963),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169-170쪽; 金斗鍾(1981), 『韓國醫學史』, 탐구당, 294쪽; 金信根(1989), 『韓醫藥書攷』, 서울대학교출판부, 113쪽; 안병희(1991), 『『神仙太乙紫金丹方』解題』, 『계간서지학보』 6; 김재은 외(2011),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李宗準 醫案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5-2.

속해서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해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을자금단에 대한 이해가 두 계통으로 나뉘어 있었음은, 조선후기 의료가 여전히 계층적으로 차별적이며 주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태을자금단은 조선시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의료의 계층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의미를 갖고 있다.

2. 이종준과 의학

2.1. 가계와 관력

『신선태을자금단방』의 저자인 이종준은 경주(慶州)사람으로 자는 중균(仲勻), 호는 용재(慵齋)·용헌(慵軒)·부휴자(浮休子)·상우당(尙友堂)·태정일씨(太庭逸氏)·장육거사(藏六居士) 등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대사헌을 지낸 이승직(李繩直)이며, 아버지는 진사 이시민(李時敏)이고, 어머니는 안동권씨인 권계경(權啓經)의 딸이다. 그러나 조선 전기 대부분의 인물들처럼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 특히 그가 나중에 무오사화에 연루됨으로 인해서 행적에 대한 내용이 매우 부족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의 행장이 만들어진 것도 8대손인 이학경(李學慶)이 유규(柳奎)에게 부탁함으로써 가능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까닭에 남아 있는 전적이 별로 없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이종준의 문집인 『용재유고』(慵齋遺稿)의 경우 대부분이 그와 교류하였던 남효온(南孝溫)과 같은 인물들의 문집에서 관련 있는 자료를 가져오고, 무오당적(戊午黨籍) 등에서 취사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그의 일생에서 주목할 것은 이종준의 집안이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연루되어 꽤 오랜 기간 동안 중앙정계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사

실상 금고(禁錮)의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종준은 현재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에서 태어났다. 집안의 어려움과 그의 성장기에 대해서는 성종 22년에 그가 성균관 전적에서 사헌부 감찰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사간원이 서경(署經)을 거부하자, 자신을 변론하는 글을 상소하였던 것이 실록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²⁾ 그에 따르면 이종준의 아버지인 이시민의 이모제(異母弟)인 이명민(李命敏)이 계유정난에 연루되어 죽게 되었음에도 처음에는 연좌되지 않았으나, 1454년(단종2) 동모(同母)와 이모(異母)의 구별에 상관없이 연좌되면서 예안현(禮安縣)에 정속되었다. 다행히 4년 후인 1458년(세조4)에는 죄를 용서받게 되어 안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1472년(성종3)에는 인수대비(仁粹大妃)의 칠촌이라는 관계로 인해 방면되기에 이르렀다.

이종준이 언제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지만, 위의 기사에 이 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때 1453~4년 무렵에 태어난 듯하다. 행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재능이 뛰어났다지만 연좌되어 있었던 이유로 과거에 나가지 못하다가, 방면된 이후로 1477년(성종8)에 복시에 합격하고 다시 1485년(성종16)에 전시에 합격하여 관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³⁾에 따르면 당시 2등으로 뽑혔다고 하였는데, 그 때문인지 상당히 빠른 승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행장에 따르면 1487년에 정9품 정자에서 정6품 이조좌랑이 되었으며, 그해 가을에는 일본 사신 호송관에 차출되었고, 다시 겨울에는 정6품 평

2) 이하는 『成宗實錄』 卷249, 成宗 22年(1491) 正月 17日(甲午) 기사와 『慵齋遺稿』 附錄, 行狀(『韓國文集叢刊』, 고전번역원, 16책, 645쪽)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을 이용하였다.

안평사의 명을 받고서 상원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해에는 홍문관 교리에 제수되었는데, 서거정의 발탁으로 호당(湖堂)으로 옮겨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고 마침 왕이 환취정(環翠亭)에 행차하여 본 시험에서 일등을 차지함에 따라 다시 정언에 제배되었다. 게다가 당시 신수근(愼守勤)이 처음으로 청현직에 오르게 되자, 외척이 발호하는 기미가 된다고 하여 불가함을 적극적으로 간쟁하여 이름을 조정에 떨쳤다고 한다.⁴⁾ 이후 1492년에는 부수찬에 제수되었지만 상소하고 물러났으며, 다음해에 검상에서 정4품인 사인⁵⁾으로 승격되고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에 가게 되었다. 1494년에는 의성현령(義城縣令)이 되어 부임 초에 학교가 퇴폐함을 보고 녹봉을 털어 이긴한 뒤 유망자를 모아 시와 예를 강습하게 하는 한편 객관 앞에 누각을 건설하여 은퇴 뒤를 도모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1498년 관직을 그만두고 향리로 돌아갔다.

이상 행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실록에서는 몇 가지 그의 이력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즉 1488년 무렵 정언에 제배된 이후에 1492년까지의 행장의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실록에서는 1490년에 성균관 전직에 재임하고 있었으며, 다음해에는 사헌부 감찰로의 승진에서 사간원의 서경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전한다.⁶⁾ 1492년 무렵에는 경상도 도사(都事)를 지냈던 모양인데, 행장에서와 같이 부수찬을 역임하고 난 이후인 듯 보인다. 그러다가 1493년에는 사헌부 지평으로 승진하였으며, 관직을 그만두기 직전까지 의성현령을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1498년(연산군4)에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김종직의 부관참시와 무오오현(戊午五賢)의 치죄를 반대하고 유자광을 극형토록 상

4)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을 다른 전거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5) 『燃藜室記述』 卷6, 燕山朝故事本末, 「戊午黨籍」에서도 그가 속인을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6) 당시 서경의 거부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앞서 신수근을 배척했던 일과 관계가 있었던 듯하다.

주하였다가 오히려 죄를 받게 된다. 이때 부령(富寧)으로 귀양을 가던 도중에 단천(端川) 마곡역에 이르러 이사중(李師中)의 시를 써서 붙였는데, 그 시가 발미가 되어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이듬해 장살 당하였다.⁷⁾

2.2. 이종준의 학문과 의학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김종직 등과 함께 후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실록의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1491년 사간원에서 서경을 거부하였을 당시에 사관은 이후 그의 행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이종준은 아직 등제하기 전에는 친구들 사이에 청류(清流)라고 여겨졌으나, 벼슬을 하기에 이르러서는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 간청하기를 좋아하여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였고, 평안도 평사(評事)가 되어서는 장신구를 장만하는 데 힘써 어머니와 아내가 모두 초피(貂皮)를 입었으며, 뒤에 의성현령이 되어서는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켰다.”고 하였다.⁸⁾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성종실록이 편찬되는 과정을 검토해보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성종이 죽은 다음해인 1495년 노사신(盧思愼) 등의 건의에 의해 실록청이 설치되어 편찬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실록이 완성된 것은 1499년(연산군5)이었다. 이때 실록편찬의 책임을 맡았던 인물들 가운데에는 어세겸(魚世謙)·이극돈(李克敦)·유순(柳洵) 등 무오사화와 관련된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다. 따라서 사신의 평가 역시 이들에 의해서 극도로 나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종준이 사사하였던 김종직의 경우에도 “스승은 제 제자를 칭찬하고, 제자는 제 스승을

7) 이종준의 가계와 생애에 대한 고찰은 김재은 외, 위의 논문이 약간의 도움을 준다.

8) 『成宗實錄』卷249, 成宗 22年 正月 17日(甲午), “史臣曰 宗淮未登第 儕輩以清流許之 及筮仕 喜干謁 多行鄙事 爲平安道評事 務辦粧具 母妻皆衣貂 後爲義城縣令 不恤民瘼 大興土木”

칭찬하는 것이 사실보다 지나쳤는데, 조정 안 신진의 무리도 그 그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붙좃는 자가 많았다.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비평하여 ‘경상도 선배의 무리’(慶尙先輩黨)라고 하였다.”고 하여, 매우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⁹⁾ 또한 그와 교류하였던 남효온에 대해서도 무오사화 이후, 사회에 관련된 윤필상 등이 김종직을 미워하여서 그 제자인 남효온을 꺼려 당시 뛰어난 시문을 모아 인출하려던 계획에서 남효온을 배제했다고도 전해진다.¹⁰⁾

이처럼 이종준의 학문과 행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 전기 사림의 계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김종직(金宗直)을 사사했고, 그 문하에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김일손(金駟孫), 권오복(權五福), 박한주(朴漢柱), 남효온 등과 가까이 사귀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실록의 평가에서처럼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의 학문과 일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분명하며, 아주 소략하게 남아 있는 그의 문집에도 김일손이나 남효온 등과 나눈 시가 조금 남아 있다. 다만 이들 조선 전기 사림계열의 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학문경향과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주로 경학적인 측면만 밝혀져 있으며, 기타 방면에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종준에게 준 영향, 그 가운데에서도 의학과와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김종직, 남효온과의 교류는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김

-
- 9) 『成宗實錄』 卷169, 成宗 15年(1484) 8月 6日(庚申), “史臣曰 宗直 慶尙道人也 博文工詞章 樂於訓誨 前後受業者 多登第 以故慶尙之儒仕于朝者 推尊爲宗匠 師譽其弟 弟譽其師 過其實 朝中新進之輩 亦莫覺其非 多有從而附者 時人譏之曰 慶尙先輩黨”
- 10) 『燕山君日記』 卷35, 燕山君 5年(1499) 10月 7日(癸巳), “孝溫跌蕩無檢 其文章有多可取 近世金宗直於文章獨得其奧 見孝溫作 推許不已 弼商等嫉宗直 以及其徒爲此說以沮之”

종직은 성리학적 풍모 이외에도 시와 문장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또한 남효온은 성리학의 연구에 있어서 박학적인 태도를 갖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특히 김종직은 조선 사회에서의 지방사회가 갖는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방사회에 대한 법제적, 학문적 통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기울였던 인물이다. 부족하지만 이종준은 그의 스승과 교우들과 유사한 학문적 태도로써 지방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듯하다.¹¹⁾

이종준은 시와 서화에 능하여 서상관으로 명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의약, 복서(卜筮), 음률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규가 지은 행장에 따르면 그가 의학을 별도로 배운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¹²⁾ 다만 『신선태을자금단방』에서 언급되듯이 몇 권의 의서를 읽었던 것은 분명하며, 그가 학문을 대하면서 고증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였던 측면이 있다. 즉 『신선태을자금단방』의 서술에서 단순히 의서를 인용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의안을 남겼고, 무엇보다도 태을자금단에 들어가는 약재의 고증에서 매우 철저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의학에 대해 나름 깊이 있게 연구하였던 듯하다.

그는 태을자금단에 들어가는 여러 약재 가운데 하나인 천금자를 소개하면서 『본초』의 설명을 들어 성미(性味)와 독(毒)의 유무, 그리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병증 등을 자세하게 밝히고, 이외의 효과와 생태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¹³⁾

서울은 기온이 한랭하기 때문에 많이 나지 않고, 영남과 호남지방의 바닷가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열매의 수확이 매우 적어서 얻기가 아주 어렵

-
- 11) 김종직에 대해서는 김태영(2006), 『朝鮮性理學의 歷史像』, 경희대학교출판부 참조.
 12) 『慵齋遺稿』附錄, 行狀; 『秋江集』卷7, 雜著, 『師友名行錄』(『韓國文集叢刊』, 16책, 137쪽).
 13) 『神仙太乙紫金丹方』, “本草云 味辛溫有毒 主婦人血結月閉 癥瘕痰癖 瘀血蠱毒 鬼疰心腹痛 冷氣脹滿 利大小腸 除痰飲積聚 下惡滯物 莖中白汁 剝人面皮 去黥黠 處處有之 苗如大蒜 採無時”

다. 내가 시험삼아 가을에 수십 낱을 화분에 심어 길러 보았다. 겨울이 되자 얼어 죽은 것이 많았고, 또 굽벥이가 뿌리를 즐겨 먹으므로 굽벥이를 잡아 죽이고서 거두어 움에 두었더니, 살아난 것이 겨우 6~7개였다. 파란 것이 매우 사랑스러웠다. 가을에 종자를 받았으나 역시 수량이 적어서 1냥에 껍데기를 제거하면 무게가 6~7돈에 지나지 않고 기름을 빼내면 겨우 3돈 뿐이다. 한 제(劑)의 약을 짓는 데 들어가는 수량으로 3냥 5돈을 사용하려면 껍데기를 제거하고 기름을 빼내고서 1냥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기름기 빼기가 매우 곤란하다. 껍데기를 제거하고 갈아서 종이에 싼 다음 생포(生布)로 또 싸서 비틀어 짜내야 한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 보았고, 또 옛사람이 종이에 싸서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 놓는 방법도 시험해 보니, 모두 위의 방법에 미치지 못하였다.¹⁴⁾

그의 학문적인 태도가 단순히 서적을 고찰하여 증명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재를 구해다가 실제로 재배해 보고, 나아가 조제에 사용할 기름을 짜내는 방법까지 고안하였을 정도로 치밀하였다.

그렇다면 이종준은 태을자금단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뒤에서 고찰하겠지만, 『신선태을자금단방』의 전거는 『의방유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의방유취』는 1477년 간행되었고 이때는 그가 복시에 합격했을 무렵이므로 이미 완성된 『의방유취』를 보았던 듯하지만, 그 계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사가독서를 하였다든 점을 본다면, 혹 당시 내의원제조를 지내고 있던 허종(許琮, 1434~1494)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¹⁵⁾

14) 『神仙太乙紫金丹方』, “都下氣寒 多不活 嶺南湖南海邊有之 收實甚少 得之甚難 余試秋種數十粒于缸盆養之 冬月多凍死 又蟻螬好食其根 須覓穢藏之 收入土宇 得活者僅六七條 蔥翠可愛 至秋收子 亦尠 一兩去殼 重過六七錢 去油則僅三錢 一劑所入 當用三兩五錢 去殼油 乃得一兩重 去油甚難 去殼研 裹以紙 隔以生布紋 余試以數法 又試 古人紙裹物壓 皆不及此”

15) 『成宗實錄』 卷223, 成宗 19年(1488) 12月 21日(庚戌)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허종은 내의원제조였다.

허중은 성종 조에 청백리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였지만, 의학에도 뛰어나서 서거정·노사신 등과 함께 『향약집성방』을 언해하였고 윤호(尹壕) 등과 『신찬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을 편찬하였으며¹⁶⁾ 『의방유취』를 요약한 『의문정요』(醫門精要)를 저술하기도 하였다.¹⁷⁾ 서거정이 허중과 의서를 언해한 적도 있었으며, 또한 이종준을 사가독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것 역시 서거정이라는 점에서 서거정을 통해서 허중과 이종준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3. 『신선태을자금단방』의 구성

3.1. 태을자금단의 기원과 구성

『신선태을자금단방』은 연산군 3년(1497)에 이종준이 중국의 태을자금단 약효가 신기한 것을 경험하고서는, ‘신선’이라는 글자를 덧붙이고 방문을 언해하여 간행한 1권의 책이다.¹⁸⁾ 그러나 중국에 『태을자금단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이종준에 의하면 태을자금단은 중국의 당나라 때부터 전해오던 처방으로 당나라의 진자명(陳自明)과 송나라의 이신실(李迅實)이 신선퇴독원(神仙退毒元), 성수단(聖援丹) 또는 신선해독만병원(神仙解毒萬病元)이라고 하면서 알려졌다. 그리고 명나라 구선(瞿仙)은 옥추단(玉樞丹)이라 하면서, 왕응기(王應椅)가 지금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여 기원을 밝혀 놓았다.¹⁹⁾

16) 『成宗實錄』 卷232, 成宗 20年(1489) 9月 21日(丙子).

17) 『二樂亭集』 卷8, 跋, 「醫門精要跋」(『韓國文集叢刊』, 17책, 75쪽).

18) 『神仙太乙紫金丹方』의 맨 말미에 “茲不可不傳 乃書顛末 并圖山茨菰 入梓流布云 弘治丁巳端陽節 備齋病叟李宗準 仲鈞識”이라고 하여 출판의 이유와 시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놓았다.

실제로 태을자금단의 처방이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는 남송대의 의사인 왕구(王璆)가 1196년에 간행한 『시재백일선방』(是齋百一選方)에 처음 수록되었다고 한다.²⁰⁾ 그러나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의방유취』에 실려 있는 것과 여타 의서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본에서 1799년(寬政11)에 간행한 것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의방유취』에 소개된 태을자금단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의방유취』에는 태을자금단이 대략 10여 군데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들을 참조하여 이종준이 최종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처방의 기원과 별칭을 진자명과 이신실, 구선, 왕응기 등에서 찾고 있었는데, 약간의 착간이 일어나고 있다. 진자명(1190~1270)은 당대가 아닌 송대의 의학자로, 그는 대대로 의사를 한 집안 출신으로 태의국(太醫局)에 산과(産科)가 설치되어 전문 의서의 필요성에 따라 1237년에 『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 24권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 책은 그 당시까지 나온 부인과 관련 이론, 치료 등의 내용에다가 자신의 치료경험까지 첨가한 최고의 부인과 전문서적으로, 조선에도 소개되어 널리 이용되었던 의서이다.²¹⁾ 그는 이 뿐만 아니라 『외과정요』(外科精要)를 저술하여 외과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바로 이 『외과정요』에 태을자금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

한편 송나라의 의사로 소개된 이신실은 이신(李迅)을 의미하며, 어떤 이유로 ‘실’자가 첨가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특히 옹저(癰疽)의 치료에 매우 뛰어났으며 이를 『집험배저방』(集驗背疽方)으로 남겼다고 하는데,²²⁾ 현재 전해지는 『집험배저방』을 확인해보아도 태을자금단은 나타

19) 『神仙太乙紫金丹方』, “唐陳自明 宋李迅實 皆名神仙退毒元 又名聖援丹 又名神仙解毒萬病元 大明 玄洲道人 涵虛子臚仙 謂之玉樞丹 止謙道人王應椅 作今名”

20) 김재은 외, 위의 논문, 159쪽.

21) 『鄉藥集成方』의 婦人門은 대부분 『婦人大全良方』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丹波元胤, 『醫籍考』, 卷70, 方論48, 『李氏(迅)集驗背疽方』, “四庫全書提要曰『集驗背疽方』一卷 宋李迅撰 迅字嗣立 泉州人 官大理評事 以醫著名…凡診候之虛

나지 않아서 이종준이 어디에서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명대의 의사인 구선은 조선 전기에 매우 널리 알려진 인물로, 명 나라를 건국한 태조 주원장의 13째 아들인 주권(朱權)이다. 그가 저술했다는 『활인심방』은 퇴계 이황이 필사하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용했다고 하여 특히 알려져 있다. 구선의 태을자금단에 관한 내용은 『활인심방』에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의방유취』에서 소개하는 가운데 구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종준의 기록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왕응기는 어떤 인물인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데, 아무래도 『시재 백일선방』을 저술한 왕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준은 이들에 의해서 소개된 태을자금단의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고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고 자언하였다.²³⁾ 『의방유취』에서 발견한 이 약에 관한 정보를 이리저리 모으고 정리하면서, 기원과 명칭에 대한 고증도 하였던 듯하다. 그리하여 『의방유취』 권174에 인용된 『외과정요』에서 언급한 응저의 치료법 가운데 태을자금단의 다른 명칭인 신선추독원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주석으로 “성수단이라고도 하고 또 신선해독만병원이라고도 한다.”는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²⁴⁾ 앞서 태을자금단의 명칭의 고증이 바로 이 전거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종준은 중국에서 알려진 처방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태을자금단의 약재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의방유취』에서 소개된 태을자금단은 『시재의방』의 경우 문합(文蛤)

實 治療之節度 無不斟酌輕重 辨析毫芒 使讀者瞭如指掌 中如五香連翹湯 內補十宣散 加料十全湯 加減八味丸 立效散之類 皆醇粹無疵 足稱良劑 至忍冬丸 與治乳癰發背神方 皆祇(祇)金銀花一味 用藥易而收功多 於窮鄉僻壤難以覓醫 或貧家無力服藥者 尤爲有益 洵瘍科中之善本矣”(北京: 學苑出版社, 2007) 542쪽.

23) 각주 18) 참조.

24) 『醫方類聚』 卷174, 癰疽門五, 外科精要一, 『神仙退毒元』, “又名聖援丹 又名神仙解毒萬病元”

3냥, 홍아대극(紅牙大戟) 1냥5돈, 산자고(山茨菰) 2냥, 속수자(續隨子) 1냥, 사향(麝香) 3돈이며,²⁵⁾ 『외과정요』의 경우에 문합 3냥, 산자고 2냥, 천금자 1냥, 대극 1냥5돈, 사향 3돈으로 동일하다.²⁶⁾ 반면에 이종준은 산자고 2냥, 천금자(千金子, 속수자) 1냥, 오배자(五倍子, 문합) 3냥, 홍아대극 1냥반, 사향 3돈을 말하고 있다.



처방의 구성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지만, 순서상에서 『시재의방』과 『외과정요』는 문합이 가장 중요한 약재로 기재된 반면에 이종준은 그보다 산자고를 위주로 파악하였다. 구선이 옥추단을 설명하면서 산자고가 중요하다고 파악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약물학 상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산자고를 잘못 안 채로 사용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종준이 파악하였다는 사실이다.

25) 『醫方類聚』 卷163, 解毒門三, 是齋醫方, 解毒, 「神仙解毒萬病元」.

26) 『醫方類聚』 卷174, 癰疽門五, 外科精要一, 「神仙退毒元」.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책의 첫머리에 산자고를 새싹이 자란 모습, 개화한 형태, 꽃이 떨어진 이후의 모습, 열매를 맺은 모양, 잎이 저 말라버린 모습 등으로 나누어 그리기까지 하였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의서에서는 본초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정확한 본초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3.2. 본초학 연구와 의안

이중준은 태을자금단에 들어가는 약재 가운데 잘못 이해되고 있는 산자고의 생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림으로써, 일반 민들이 이를 채취하여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본초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태을자금단에 들어가는 약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산자고, 천금자, 문합, 홍아대극, 사향이 그 대상이다. 그는 이들에 대해서 『본초』나 『외과정요』, 구선의 『활인심방』 등을 인용하여 그 약효와 생태 등을 언급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빌어 고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다시 마산(馬蒜)을 사용하고 있으니 더욱 우스운 일이다. 마산은 잎의 크기가 띠(帶)와 같아서 길이가 1~2척이나 되고, 뿌리의 크기는 주먹만 한데 작은 것은 까치 머리만하다. 2~3월에 싹이 돋고 6월에 잎이 마르고 7월에 붉은 꽃이 핀다. 높이는 두어 자(數尺) 남짓하다. 따라서 구선이 말한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런데 세상의 의원들이 잘못 사용했고, 또 책에 기록까지 하여 『구급간이방』의 산자고 아래에 언문 글씨로 들무웃이라 썼다. 때문에 뒷사람들 중에는 이를 변증하려는 사람조차 없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다. 내가 약을 감정하던 겨를에 『본초』 『외과정요』 『활인심방』 등의 책을 뒤적이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산과 들을 수색하여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농촌

의 아이들이 까치마늘이라고 하면서 캐어서 날로 먹는 것으로 생김새는 소산(小蒜) 같았고 맛은 맵지 않았다. 그것은 거친 껍질에서부터 털과 섞여 여러 겹으로 싸여 있었다. 싹이 자랄 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마를 때까지 털에 싸여 있는 것이 한결같이 구산(주권)의 말과 같았다. 그래서 처방에 따라 취하여 제약해서 시험해 보니, 증세에 따라 문득 효험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스스로 믿었으므로 내가 잊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전하는 것이다.²⁷⁾

위는 산자고에 대한 설명으로, 『본초』를 비롯한 중국의 의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간행한 『구급간지방』도 참조하여 산자고에 대한 생태를 자세히 비교하였고, 아울러 약을 지어 시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진품의 여부를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문헌학적인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실험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산자고를 주약으로 보았던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권인데, 『의방유취』에서는 주권의 『활인심방』에서 언급된 옥추단에 대한 설명 중 산자고에 대한 주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산자고사람들이 이 약을 알지 못하여 아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산자고를 민간에서는 금등롱이라고 한다. 잎은 부추잎 같고, 꽃은 금등롱 같이 생겼는데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있고 열매는 세모이다. 2월에 긴 싹이 나오고 3월에 꽃이 피는데 4월이 되면 싹

27) 『神仙太乙紫金丹方』, “今本國醫家 更以馬蒜用之 尤可笑也 馬蒜者 葉大如帶 長可一二尺 根大如拳 小者如鴉頭 二三月長苗 至六月葉枯 七月開紅花 高數尺 與臞仙所云者 絕不相類 世醫非但用以製藥 以誤一時而已 又筆之於書 救急簡易方 山慈菘下 諺書물물웃 以誤後人 莫有辨卞之者 甚可嘆也 余於嘗藥之假 披閱本草及外科精要 活人心方等書 知其舛僞 搜索山野而得之 乃即今田野兒所謂鵲蒜 까치마늘 而採而生食者 甚類小蒜 而味不辣 有粗皮 和毛裹數重 自長苗 至開花結子 葉枯 毛色一如臞仙之言 然後依方取之劑藥 以試 隨證輒驗 於是自信 余不妄 乃始傳之也”

이 마른다. 땅을 파서 캐는데, 산자고는 겉이 털로 쌓여 있어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썩이 있을 때 그곳을 알아두었다가 가을과 겨울에 얻는다. 이 처방은 산자고가 진짜가 아닐 때에는 효과가 없다.)²⁸⁾

『신신태을자금단방』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른바 조선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마산과 『활인심방』에서 말하고 있는 산자고는 전혀 다른 계통의 식물이다. 그런 까닭에 생김새와 생장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의원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가 산자고를 주권의 견해에 따라 변별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즉 『활인심방』에서 묘사된 내용을 검토해서 같은 약재로 인정할 수 있었지만, 더 나아가 실제 제약과 시험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탕이 되어 그는 산자고만이 아니라 천금자의 경우에는 씨를 얻어 직접 재배하였고, 아울러 어떻게 하면 천금자의 기름을 효과적으로 짜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기술하기도 하였다.²⁹⁾ 이외에도 그가 중국에 갔을 때 경험하였던 사항도 국내의 것이 가장 좋다고 평을 내리기도 하였다.³⁰⁾

28) 『醫方類聚』卷163, 解毒門三, 是齋醫方, 解毒, 「神仙解毒萬病元」, “山茨菰 人皆不識 以老鴉蒜爲之 故藥不眞 則不效 其山茨菰者 俗名金燈籠 其葉似韭 花似燈籠 其色白 上有黑點 結子三稜 二月長苗 三月開花 四月苗枯 空地得之 其茨菰上有毛包裹 人不可識 採時可於有苗時記其地 至秋冬取之 此藥中其山茨菰不眞 則藥不效”

29) 앞의 각주 14) 참조.

30) 『神仙太乙紫金丹方』, “余嘗赴燕京 收買於來王撻子部 乃是眞者 然亦不如本國產者之良 山石險阻 處處有之 性本不驚 見則必獲 卽以細繩墜結臍根 割取之 酒浸三日 掘坑二尺許 泥塗其內 熾桑柴 去火乘熱 橫十字木於坑口 懸繫垂下 以瓦盆覆之 經宿待乾取出 以蛇蛻皮裹藏之 香殊勝 西北界尤多產 香有三種 第一生香 麝子夏食蛇蟲多 至寒則香滿 入春急痛 自以爪剔出 着尿溺中覆之 皆有常處 人有遇得 乃至一斗五升也 用此香 乃勝殺取者也 落處遠近草木焦黃 此極難得 其次臍香 乃捕

이처럼 약재에 무척이나 신경을 썼던 것은 결국 올바른 약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태을자금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처방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의 의사들이 이미 산자고를 잘못 알고 쓰는 데다가 다시 옹황(雄黃)과 주사(朱砂)를 더해서 그 진성(眞性)을 어지럽혔고, 또 본래 처방의 중량과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약이 효력이 전혀 없으니, 고찰하지 않은 것이 너무 심하다.³¹⁾

실제로 옹황과 주사가 들어가도 약효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종준이 표현한 바와 같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아마도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약이 되기 위해서는 굳이 구하기 힘든 옹황과 주사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던 것 같다. 이처럼 들어가는 약재를 고증한 이후, 약을 조제하는 방법과 태을자금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증과 효능, 복용법, 금기 부분은 모두 한글로 언해하여 기록하여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경험하였던 태을자금단의 치료효과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태을자금단 약효의 범위가 무척 넓어 약에 의한 중독, 장기(瘴氣) 등을 비롯하여 옹저, 풍병, 소아의 갑작스런 경기, 학질 등 무려 60여 가지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효능이 이처럼 뛰어났던 것일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종준이 참고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방유취』에서도 이상의 약효

得殺取者 又其次心結香 麝被大獸捕逐 驚畏失心狂走 顛墜崖谷而斃 人有得之 破心見血 流出作塊者 是也 此香乾燥 不可用”

31) 『神仙太乙紫金丹方』, “今之醫家 既誤用山茨菰 復以雄黃朱砂添入 以亂其眞 又與本方銖兩頓殊 故藥全不效 其無稽甚矣”

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³²⁾ 그런데 이종준은 그 약효를 그대로 인용하는 대신에, 『신선태을자금단방』의 마지막에 의안을 기록해서 단순히 해독이나 웅저 이외에도 증풍과 화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었음을 새삼 밝히려고 하였다. 그 중의 몇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손만호란 사람은 나이 80이 다 되어 갑자기 증풍에 걸렸다. 말도 잘 못하고 정신이 멍했었는데 이 약을 먹고는 즉시 나았다. 영천군수인 윤수천의 첩은 속병을 앓았는데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이 약을 먹여 보았더니 즉시 나았다. 나의 일족(孽族)인 남미종은 끓는 물에 온몸을 데었고, 고을 아전 김견의 아들은 손가락과 팔뚝을 불에 데어 모두 죽게 되었었는데, 처방에 따라 이 약을 갈아서 발라 주었더니 얼마 있다가 노란 물이 흐르면서 모두 나았다. 늙은 아전 전춘이 증풍에 걸려 구금(口噤)이 되고 진신불수가 된 지 3년이였다. 시험 삼아 이 약을 먹었더니, 아주 낫지는 않았으나 말의 음이 통하여 소리 내어 노래할 수 있었고, 일어나 걸어 다녔다.³³⁾

이 외에도 여러 해 동안 손에 풍종(風腫)을 앓았던 내종제(內從弟)인 권숙균(權叔均)과 옆구리에 갑작스런 종창(腫瘡)으로 고생하였던 흥해백(興海伯) 강진(康珍), 등에 종창을 앓은 김계장(金戒章), 중악(中惡)으로 기절한 권인(權寅)의 아내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종창 등을 앓았다고 한다면, 앞서 거론된 인물들은 그와 다른 질병인 화상이나 특히 증풍을 앓는 경우였다. 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태을자금단의 효과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창종과 같은

32) 『醫方類聚』 卷163, 解毒門三, 是齋醫方, 解毒, 『神仙解毒萬病元』에서 소개된 태을자금단의 효능과 거의 동일하다.

33) 『神仙太乙紫金丹方』, “有孫萬戶者 年幾八十 猝中風 語澁心癡 服此卽差 尹永川 壽泉妾 得腹癩 諸醫束手 試服之 立愈 孽族南美終 遍身湯灼 縣吏金堅兒子 火燒指臂 並幾死 依方磨搽 有頃黃水流 皆愈 老吏全春 中風口噤 全身不遂 三年 試服之 雖(未)永愈 語音乃通 引聲爲歌 起而行步”

외과적 질환과 중풍과 같은 내과적 질환으로 대별된다. 물론 태을자금단이 이들 모두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약물학의 발전상과 관련해서 고찰할 때 매우 특이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태을자금단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굳이 이종준의 의안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필자가 개략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처음 태을자금단이 나온 이후 점차로 그 치료의 효과가 점점 작은 범위인 해독과 중창 질환의 치료제로 한정되어 가고 있었다. 이는 의학의 발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였는데, 의학과 약물학이 발전할수록 광범위하게 효과를 갖는 약제보다는 특정 증상에 보다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형태로 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이종준은 오히려 초기에 보인 만병통치약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였다.

4. 『신선태을자금단방』의 의의와 전승

4.1. 태을자금단에 나타난 의료의 사회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을자금단은 이종준에 의해 만병통치약처럼 이해되었고, 그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로서 자신의 의안을 서술하였다. 그가 책을 편찬하였을 무렵은 지방관에 나아가 있었을 때이므로, 당연히 당시 지방에서의 효용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남는 의문은 여러 가지 약들 가운데 굳이 태을자금단을 선택한 이유이다.

조선 전기에도 태을자금단과 마찬가지로 만병통치약에 가까울 정도로 이해되었던 약들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황청심원(牛黃淸心元)이나 소합원(蘇合元)과 같은 약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들어가는

약재들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많아서, 가격이 높았다고 한다. 가령 1404년(태종 4) 진하사(進賀使)로 명에 갔던 이지(李至)·조희민(趙希閔)이 가져온 침향(沈香)·소합유(蘇合油)·용뇌(龍腦)³⁴⁾ 등은 청심원·소합원을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는 약재였는데, 이들은 국내에서는 거의 구할 수 없어 가격이 높은 약재들이었다고 당시에 기록하고 있었다.³⁵⁾ 따라서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약들도 꽤 있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납약으로 이용되었고 『납약증치방』을 통해서 그 면모를 볼 수 있다. 『납약증치방』은 납약의 사용설명서와 같은 의서로, 원래 납약(臘藥)이란 동지가 지난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에 짓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납일에 여러 신하에게 약과 향을 내려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 『납약증치방』에는 총 35종의 납약, 『언해납약증치방』에는 총 37종의 납약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은 조선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된 일반 처방이면서도 동시에 치료효과가 꽤나 광범위하였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우황청심원이나 소합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태을자금단도 그 안에 들어 있는데 태을자금단은 다른 납약들과는 다른 면모가 있었다.

즉 『언해납약증치방』에 포함된 납약들은 대부분 들어가는 약재의 수가 무척이나 많았다. 우황청심원은 25종, 소합원은 15종, 목향보명단(木香保命丹)은 26종, 만병원(萬病元)은 32종, 보안환(保安丸)은 24종, 수저목향고(水煮木香膏)는 17종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약재가 들어가야 하는 처방을 지방에서 사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물론 태을자금단처럼 약재의 수가 적은 납약도 일부 있었다. 용뇌·

34) 『太宗實錄』 卷8, 太宗 4년(1404) 11월 1일(己亥).

35) 『世宗實錄』 卷29, 世宗 7년(1425) 8월 28일(甲午).

유인(蕤仁)·행인(杏仁)만으로 구성되는 용뇌고(龍腦膏)나 수비(水飛)한 옹황(雄黃)과 울금(鬱金)·파두(巴豆)로 만드는 해독옹황원(解毒雄黃元), 목향(木香)·침향(沈香)·유향(乳香)·파두가 재료인 영보단(靈寶丹) 등 약재의 수가 적은 처방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게 되면 산지가 인도나 동남아시아처럼 더운 지역에서 산출되는 용뇌나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며 독성이 강한 약재인 파두 등이 들어가지도 하며, 가격이 높은 침향·인삼 등이 주재료인 약들이 대부분이었다.³⁶⁾

이와는 다르게 태을자금단은 구성 약재의 수가 매우 적으면서도 대부분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였으며, 이종준이 태을자금단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울러 태을자금단은 다양한 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었다. 의사와 의약품이 부족하였던 지방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약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의료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의원을 육성하고자 하였지만, 지방이나 하층민에게는 여전히 의료의 손길은 부족한 상태였다. 한양에는 적어도 헤민서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종준이 책을 편찬할 무렵인 15세기 후반 지방에서는 의료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였다. 군현제 아래에서 큰 고을에 의원이 설치되고, 각 의원에는 의생(醫生)이 배정되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에 의한 의료활동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³⁷⁾ 그런 까닭에 중앙정부

36) 이 외에도 언급된 납약으로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지보단(至寶丹),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우황양격원(牛黃涼膈元), 가감박하전원(加減薄荷煎元), 용뇌고(龍腦膏), 해독옹황원(解毒雄黃元), 사청환(瀉靑丸), 감응원(感應元), 신보원(神保元), 구통원(九痛元), 온백원(溫白元), 영보단(靈寶丹), 비급원(備急元), 착호단(捉虎丹), 호합인진환(好合茵陳丸), 옥추단(玉樞丹), 귀곡단(鬼哭丹), 승금단(勝金丹), 비한단(脾寒丹), 안태환(安胎丸), 최생단(催生丹), 소아청심원(小兒淸心元), 희두토홍원(蓐痘兪紅元), 전씨안신환(錢氏安神丸), 지성보명단(至聖保命丹), 포룡환(抱龍丸), 우황포룡환(牛黃抱龍丸), 납향고(臘香膏), 신성벽온단(神聖辟瘟丹)이 있었다. 이들 역시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약재인 서각(犀角), 정향(丁香) 등이 포함되거나, 독성 약물인 주사(朱沙) 등 다루기 힘든 약재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에서는 의료인력의 확충보다는 의서를 새로이 간행·언해하여 널리 보급하는 한편 역병이 돌아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올 때에는 중앙의 의원을 파견하는 정도의 정책을 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지방민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한양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기 원하였다.³⁸⁾

의료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약재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이 없는 경우 치료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약재를 사용하지 않는 침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역시 치료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었다. 약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구하기 쉬운 약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약을 미리 준비해놓는 방법이 대안이었다. 두창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으로 어린 아이와 검은 고양이, 검은 개, 검은 돼지의 똥이 재료인 무가산(無價散) 혹은 사분산(四糞散)을 사용하는 것이 전자의 방법이라면, 고을에 약계(藥契)나 약국을 조직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약을 구매해 놓는 것이 후자의 방법이었다.³⁹⁾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태을자금단은 매우 효용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산림경제』의 저자는 태을자금단을 소개하는 편에서 자신이 왜 약재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질병이 생기는 것은 사람마다 면할 수 없으므로 약은 없을 수 없는 것이요, 향촌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토산의 약재가 많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37) 김성수(2001), 「16세기 鄉村醫療 實態와 士族의 대응」, 『韓國史研究』 113.

38) 『默齋日記』 1554년에 등장하는 崔淨(崔瀟)은 그 아버지인 崔思哲(崔斯哲)의 증풍을 고치기 위해서, 이문건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증세에 호전을 보였음에도 상경하기에 이르렀다. 김성수(2001), 위의 논문, 38쪽.

39) 침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한 사례로, 유성룡이 『침경요결』을 편찬하고 이정희가 안동지역에서 침술치료 활동을 한 것을 들 수 있다.(김성수(2001), 위의 논문, 47-49쪽) 또한 약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李揆大(1988), 『朝鮮時代藥局稷의 一考察』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참조.

사람들이 미리 재배하여 저장해 두고서 불시의 수용(需用)에 대비하지 않다가, 병이 들어 약을 써야 할 때에 이르러서야 급작스레 찾게 되니, 이것은 7년 병에 3년 된 약썩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치약법(治藥法)을 기록한다.⁴⁰⁾

지방의 의료상은 조선후기에서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15세기 후반 지방의 의료상황을 이종준은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편찬하였고, 그 시점이 바로 의성현령에 재임 중이었을 때였다. 게다가 국내의 의서에서는 보기 드물게 그림을 그려서 주 약재인 산자고를 분명하게 하고자 한 데에는 이종준이 의도한 깊은 뜻이 있었다고 하겠다. 의사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 태을자금단은 필요한 약이었고, 이종준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매우 심혈을 기울여 약재를 고증하고 자신의 의안을 덧붙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4.2. 태을자금단의 전승

태을자금단이야 말로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 우리가 속칭하는 만병통치약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랬을까? 태을자금단은 1세기 이후 편찬된 『동의보감』이나 『납약증치방』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언급된 효능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다. 가령 『신선태을자금단방』보다 뒤에 편찬된 『동의보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동의보감』에서는 태을자금단 혹은 자금정이라고 하였는데, 주로 응저(癰疽)나 등창 등의 해독과 여러 가지 종창, 유옹(乳癰) 및 변독(便毒)

40) 『山林經濟』 卷3, 『治藥序』, “疾病之來 人所不免 藥餌不可缺 而於鄉村 尤切焉 土產材料 不爲不多 人未嘗栽種 收貯 以備不時之需 及至臨病用藥 窘急求覓 此猶七年之病 求三年之艾也 茲錄治藥之方”

에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⁴¹⁾ 이외에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 쌓여서 생긴 적취(積聚)가 벌레로 변한 고적(蟲積)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²⁾ 또한 귀신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나, 여성이 정신이 나간 상태에 헛것과 성교하여 생긴 귀태(鬼胎)에도 이 약을 먹으면 병의 원인이 된 나쁜 물질을 토해낸다고 하였다.⁴³⁾ 또 죽은 소나 말의 고기를 먹고 중독되어 온몸에 자주빛의 물집이 생기고 고통을 받는 경우, 즉 식중독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도 이 약을 먹고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낫게 된다고 하였다.⁴⁴⁾ 이러한 태을자금단의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태을자금단은 일명 자금정·만병해독단이라고 한다. 고독, 도생독, 여우, 삶, 쥐독과 독초 독버섯 복어독, 죽은 소나 말고기의 독, 산람장기의 독, 여러 약 식 돌 풀 나무 새 짐승 벌레 독 등 여러 가지 독을 받은 것을 치료한다. 벌레와 흙을 제거한 문합 3냥, 껍질을 버리고 약한 불기운에 말린 산자고 2냥, 물에 씻어서 약한 불기운에 말린 대극 1냥반, 껍질을 버리고 기름을 뺀 속수자 1냥, 사향 3돈을 가루내 찹쌀 죽에 버무린 다음 절구에 천여 번 찼어 알약 40개를 만든다. 한 번에 반 알씩 박하를 달인 물에 풀어서 먹는데, 병이 중하면 1알씩 먹는다. 깨끗한 방에서 향을 피워놓고 몸을 깨끗이 하고 만든다. 그러나 여자나 상복을 입은 사람이 보지 못하게

41) 『東醫寶鑑』 雜病篇, 卷8, 癰疽 下, 『疔疽』, “紫金錠 一名 萬病解毒丹 治癰疽 發背 諸腫 諸癰 疔瘡 惡瘡 一切腫毒(方見解毒) 每取半錠 淡酒化下, 重者一錠, 外以涼水 調塗患處 一日數次 卽效. 惟已潰 出膿血者 忌服.”; 『東醫寶鑑』 雜病篇, 卷8, 癰疽 下, 『癰疽通治藥』, “紫金錠 治內外癰疽 惡瘡 疔瘡 無名毒 腫乳癰 便毒”

42) 『東醫寶鑑』 雜病篇, 卷6, 積聚, 『蟲積』, “飲食積聚 變化成蟲 宜用妙應丸方見虫門 溫白元 萬病元 紫金錠方見解毒.”

43) 『東醫寶鑑』 雜病篇, 卷7, 邪祟, 『邪祟尸疰治藥』, “紫金錠 治感鬼邪 成鬼胎. 溫酒 化下 半錠至一錠 方見解毒 一女子 爲邪魅所交 腹中作痞 服此藥隨下惡物 其邪仍 至 又服半錠 更燒三錠 藥氣滿屋 邪不復至”

44) 『東醫寶鑑』 雜病篇, 卷9, 解毒, 『馬毒』, “開剝死牛馬中毒 遍身生紫疱俱潰叫痛, 急服 紫金錠 吐瀉卽愈”

하고, 닭이나 개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스스로 목을 매었거나 물에 빠졌거나 헛것에 홀렸거나 놀라서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의 명치끝이 따뜻 할 때에는 찬물에 갈아서 떠넣어주면 곧 깨어난다. 뱀 개 여러 가지 독벌레한테 상했을 때에는 술을 풀어서 먹고, 물에 갈아서 상한 자리에 바른 다.⁴⁵⁾

『동의보감』에서 나타난 태을자금단은 주로 해독 작용이나, 종창과 같은 외과적 치료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한정되었다. 물론 목을 매거나 물에 빠졌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신선태을자금단방』의 경우와 같이 풍(風), 학질 등과 같은 질병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납약증치방』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납약을 짓는 곳은 내의원을 비롯하여 주로 조선시대의 상급관청으로, 의정부·육조·도총부 등이었다. 따라서 납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들 상급기관에 속한 관원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관직을 가진 인물들이 위주일 수밖에 없었다.⁴⁶⁾ 따라서 『납약증치방』에 언급된 태을자금단의 효능은 그들을 위해서 설명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독과 여우, 삶, 쥐독과 독초·독버섯·복어독, 죽은 소나 말고기의 독, 산람장기의 독, 여러 약·쇠·돌·풀·나무·새·짐승·벌레 독 등 여러 가지 독에 중독된 것을 치료한다. 웅저·악창·은진·적류·단종을 치료 하는데, 박하를 달인 물에 반알, 혹은 한 알을 먹는다. 스스로 목을 매었거

45) 『東醫寶鑑』 雜病篇, 卷9, 解毒, 「蠱毒治法」, “太乙紫金丹 一名 紫金錠 一名 萬病解毒丹 治蠱毒 挑生毒 狐狸鼠莽惡菌 河豚死牛馬肉毒 山嵐瘴氣毒 諸藥 金石草木 鳥獸百虫 一切諸毒 蚊蛤去虫土三兩 山慈孤去皮焙二兩 紅芽大戟洗焙一兩半 續隨子去皮油一兩 麝香三分爲末 糯米粥和勻 搗千餘杵 每一料分作四十錠 每服 半錠 重者一錠 並用薄荷湯化下 在淨室 焚香齊戒 勿令婦人 孝服人 雞犬見之 自縊落水 鬼迷驚死 心頭溫者 並冷水磨灌 卽醒 蛇犬諸惡虫傷 以酒化服 水磨塗傷處”

46) 김성수(2003), 「16·17세기 中央醫療機構의 運營實態」, 『서울학연구』 20.

나 물에 빠졌거나 헛것에 흘렸거나 놀라서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의 명치끝이 따뜻할 때에는 찬물에 갈아서 떠넣어주면 곧 깨어난다. 뱀·개, 여러 가지 독벌레한테 상했을 때에는 술을 풀어서 먹고, 물에 갈아서 상한 자리에 바른다. 여타 중독에도 역시 바르면 좋다.⁴⁷⁾

그런데 『납약증치방』에서 나타난 태을자금단의 약효는 『동의보감』의 설명과 거의 일치하는데, 제조시의 금기사항만이 생략되었다. 즉 약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계층에게 있어서 태을자금단은 굳이 만병통치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여전히 만병통치약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림경제』인데, 여기서는 『신선태을자금단방』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약을 두고서 효능에 대해 두 가지 계통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태을자금단을 인용하고 있는 의서들이 갖고 있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동의보감』은 철저히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종합의서이며, 『납약증치방』은 납약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배층에게 납약의 이용을 소개하는 의서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태을자금단은 그것이 갖고 있는 주된 효과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으며, 또한 여타 다른 질환은 그에 맞는 의약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는 말이었다. 반면에 『산림경제』는 서명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산림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으며, 따라서 의약을 구비하기 어려운 지방이나 산간벽지의 상황이 배경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47) 『臘藥症治方』, 『紫金丹』, “治蠱毒 狐狸 鼠蟻 惡菌 河豚 死牛馬肉毒 山嵐瘴氣毒 諸藥金石草木鳥獸百虫 一切諸毒 癰疽 惡瘡 癰癤 赤瘤 丹腫 每用半錠 或一錠 薄荷湯下 自縊 落水 鬼迷 驚死 心頭溫者 並令冷水磨 灌即醒 又蛇犬所傷 諸惡虫傷 以酒磨服 以水磨塗傷處 諸腫毒亦可塗之”(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古朝68-112).

남긴 『청장관전서』에 기록된 태을자금단이다. 여기서 이덕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상고하건대, 자금정의 약 재료는 희귀하지 않으나 공용(功用)에 있어서 는 그 이익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약법을 알아 곽란에 갈아 복용하 고 독종에는 갈아 바른다. 옥추단은 어린아이 숨구멍을 뚫어주는 작용이 있을 따름이다. 이제 여러 약방을 상고해서 합하여 1통을 만들어 널리 응 용하는 데 대비하고자 한다.⁴⁸⁾

이덕무는 이천(李塉)의 『의학입문』의 내용을 전거로 태을자금단을 설명하는데, 그가 말하는 주된 효과는 앞서 『납약증치방』이나 『동의보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로 해독과 종창의 치료만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의학입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설명하였기 때문인데, 다만 주석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신선태을자금단방』에서 거론한 여타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때 그는 증거로서 『동의보감』과 『활인심방』, 『무비지』(武備志)를 들고 있었고, 특히 『유씨경험방』(劉氏經驗方)에서 매우 많은 인용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 『유씨경험방』이 어떠한 의서인지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이덕무는 태을자금단을 두고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흐름을 동시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태을자금단의 기본적인 용도는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의 이해와 동일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병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자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보았던 까닭에 본문이 아닌 주석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이덕무가 살았던 시기에는 의약에 있어서 상업화가 꽤나 진전되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재를 구매하

48) 『靑莊館全書』卷61, 盡葉記(八), 「太乙紫金丹」, “案紫金錠藥料 不是稀貴 功用極其利益 我國亦知劑合 而癘亂研服 毒腫磨塗 玉樞丹則絡於小兒凶冒而已 今畧考諸方 合爲一通 以備廣用云爾”(『韓國文集叢刊』, 259책, 90쪽).

는 일이 이전보다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의 공백은 피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 그는 태을자금단을 해독, 용저 등의 전문 치료제로 소개하는 한편 만병통치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병기하고 있었다.

이처럼 태을자금단은 조선에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즉 『동의보감』이나 기타 의서를 이용하여 처방을 내리는 의사나 다양한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에게 있어서는 태을자금단의 주치라고 할 수 있는 해독과 중창 등의 치료에 이용되었다. 한편으로 의사와 의서를 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기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림경제』나 『임원경제지』, 『청장관전서』 등에서 여전히 만병통치의 영약처럼 기록되고 있다는 데서 드러난다.

이미 조선후기에는 의약의 상업화가 크게 진전되어, 과거 헤민서만을 통해서 의약을 접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각지에 설치된 약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약국 이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⁴⁹⁾ 그러나 여전히 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여전히 태을자금단이 만병통치약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다.

5. 맺음말

조선시대에는 내용상, 형태상 다양한 의서가 편찬되었다. 그 차이는 각각의 의서가 추구하고 있던 구체적인 목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당시 사회에서 요청되고 있었던 의학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도 한다. 조선전기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이라는 대표적인 의서

49) 김성수(2009), 『朝鮮後期 私的 醫療의 성장과 醫業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18-1.

이외에 등장한 다양한 종류의 구급방이나 전염병 서적들이 필요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부족한 의사와 약재, 때로는 치료법을 알 수 없는 질병들. 그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서는 그에 대한 열쇠를 남겨 놓았다.

『신선태을자금단방』 역시 15세기 조선의 의학에 부여된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태을자금단이 만병통치약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즉 국가가 정책적으로 의학을 진흥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지방에서는 의약은 접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국가가 의약품의 가격에 여전히 통제력을 갖고 조절한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계층의 민들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 15세 마지막 시기에 『신선태을자금단방』을 저술한 이종준은 이러한 당시의 의료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의료가 특히 부족하였을 지방사회 나름의 대책으로 태을자금단을 권하였다.

15세기 말 이종준이 느꼈을 조선 의료의 과제는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물론 상업적 의학의 확대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늘어난 것이 분명하였지만, 의약은 계층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관료계층이나 상업의학이 발전한 도시에 거주하는 부유층들은 의약을 널리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만병통치약이 필요하였다. 『신선태을자금단방』이 간행본으로, 혹은 필사본으로, 다양한 형태로 널리 간행되어 현재에까지 남아있게 된 이유일 것이다.

참고문헌

- 『神仙太乙紫金丹方』.
『朝鮮王朝實錄』.
『慵齋遺稿』(『韓國文集叢刊』 16책).
『秋江集』(『韓國文集叢刊』 16책).
『燃藜室記述』.
『默齋日記』.
『松澗日記』.
『山林經濟』.
『醫方類聚』.
『東醫寶鑑』.
『臘藥症治方』(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 68-112).
『靑莊館全書』(『韓國文集叢刊』 259책).
丹波元胤(2007), 『醫籍考』 北京: 學苑出版社.
三木榮(1963),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自家出版.
金斗鍾(1981), 『韓國醫學史』, 탐구당.
金信根(1989), 『韓醫藥書攷』, 서울대학교출판부.
최 옹(1996), 『주해 청구야담』 2, 국학자료원.
李揆大(1988), 「朝鮮時代 藥局稷의 一考察」, 『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안병희(1991), 「『神仙太乙紫金丹方』 解題」, 『계간서지학보』 6.
신동원(2000), 「臘藥」, 『언해남약증치방』 그리고 허준, 『韓國醫史學會誌』 13권 2호.
金 濤(2001), 「16세기 후반 京·鄉의 의료 환경: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64.
김성수(2001), 「16세기 鄉村醫療 實態와 士族의 대응」, 『韓國史研究』 113.
_____(2003), 「16·17세기 中央醫療機構의 運營實態」, 『서울학연구』 20.
_____(2009), 「朝鮮後期 私의 醫療의 성장과 醫業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18-1.

김재은 외(2011),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李宗準 醫案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5-2.

원고 접수일: 2012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About *Sinseon-Taeul-Chakeumdan*
- A Panacea of the Choseon Period -

Kim, Seong Su

In the Choseon era, a diverse range of medical books, in terms of content and form, were compiled. They contained their specific purposes and show the reality of medicine required by society at the time. There were reasons why *Hyangyack-gugupbang* 『鄉藥救急方』 or other kinds of books on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representative medical books such as *Euibang-yoochui* 『醫方類聚』 and *Hyangyak-jibsunbang* 『鄉藥集成方』, were necessary. They provide us with a clue on the shortage of herbal doctors and drugs and on the large number of incurable diseases.

Sinseon-Taeul-Chakeumdanbang 『神仙太乙紫金丹方』 also shows the tasks required by the medicine of the Choseon era in the 15th century. The background for *Sinseon-Taeul-Chakeumdanbang*'s emergence as a cure-all is that people in local areas had difficulty in receiving treatment, although the government promoted medicine with policies. Furthermore, even though the government controlled medicine prices, poor people could not obtain them easily. Lee Jong-jun, who wrote *Sinseon-Taeul-Chakeumdanbang* at the end of 15th century, well understood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time and encouraged local communities provided with insufficient medical services to utilize the book as if it were a cure-all.

The medical tasks of Choseon that Lee Jong-jun would have recognized at the end of 15th century did not change until the late Choseon period. Certainly, the expansion of commercial medicine increased the number of people who gained access to appropriate treatment but medicine was unevenly distributed among different classes and regions. Bureaucrats or rich people residing in cities where commercial medicine developed were able to gain easy access to medicine, but still cure-alls were needed. It is the reason why *Sinseon-Taeul-Chakeumdanbang* was published widely as books or manuscripts and remains to the present day.